

고1
공통국어1
창비

2027 고1 공통국어1 창비 | 3(1) 인간과 동물의 공존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서는 주로 **논증하는 글의 논지 전개 방식** 파악, 글쓴이와 특정 철학자(피터 싱어 등)의 **관점 비교**, 그리고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신문 기사, 설문 조사)의 비판적 분석** 문제가 출제된다. 특히 본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일치 불일치 문제와, <보기>로 제시된 외부 지문과 본문의 관점을 연결하는 고난도 문제가 자주 나오니 유의해야 해.



그렇다면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글쓴이의 논증 구조, 철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매체 자료의 해석 방법을 잘 파악해 두어야 하겠네요.

맞아.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이 제재 글은 인간이 동물을 '소유물'이나 '상품'으로 대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진정한 '반려(동반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증적인 글이야.

우선 본문의 논증 구조를 확실히 잡아야 해. 글쓴이는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원인으로 ①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 ② 육류 산업(공장식 축산), ③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를 꼽고 있어. 특히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팔지 않았냐'는 예상 반론에 대해, 글쓴이가 "과거는 생존을 위한 실용적 목적이었고 규모가 작았지만, 현대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며 거대 산업화되었다"는 논리로 재반박하는 과정을 꼭 기억해야 한단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피터 싱어와 다른 철학자들의 입장이 조금 헷갈려요. 데카르트나, 문제에 나온 공리주의 같은 개념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철학자들의 관점 비교는 이 단원에서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지.

‘피터 싱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피터 싱어는 동물권 논의의 핵심 인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기준을 ‘이성’이나 ‘언어’가 아닌 ‘고통(감성적 능력)’에 두었어. 즉, 고통을 느낀다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지. 반면, 데카르트를 비롯한 근대 철학자들은 ‘이성’을 기준으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고 동물을 하등하게 여겼지. 그리고 공리주의(밀, 벤담)의 견해를 <보기>로 제시하는 문제도 주의해야 해.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동물의 고통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보지만, 어떤 철학자(밀의 질적 공리주의 등)는 인간의 정신적 쾌락을 우위에 두기도 하니까, <보기>에 나온 관점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쪽인지,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쪽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단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매체 자료 부분에서 설문 조사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매체 자료 분석은 ‘비판적 읽기’가 핵심이야. 단순히 수치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 따져봐야 해.

예를 들어, 펫 숍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질문 자체가 펫 숍의 부정적인 면(번식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면 답변도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반대로 질문이 중립적이라면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설문 결과가 펫 숍을 옹호하는 비율과 비판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면, 이를 펫 숍 금지의 강력한 근거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자료의 타당성과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해. 즉, 자료를 맹신하지 말고 제작 의도나 설문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한단다.



결론적으로 이 단원에서는 글쓴이가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소유→동반), 논증의 흐름(반론과 재반박), 그리고 매체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해! 특히 ‘규제’, ‘양산’, ‘간과’, ‘모색’ 같은 핵심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도 잊지 말고 챙기렴. 정리해 준 내용대로 차근차근 복습하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고1
공통국어1
창비

2027 고1 공통국어1 창비 | 3(1) 인간과 동물의 공존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 **논증**(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하는 글 읽기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서론]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규모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규모)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다. [오랫동안 저성장(규모가 커 가는 정도가 낮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오늘날 국내 전통적 산업과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세가 서로 다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900만 마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려동물에 대한 낮은 인식)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고 하니,**(반려동물에 대한 낮은 인식의 사례) 이는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것이다.

[서론]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반려동물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본론]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은 ‘**소유**’ 관계(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 조건 ①)이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은 모두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 이전에 ‘**소유물**’(소유 관계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자본주의**(소유 관계로 인식하게 되는 이유)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뜻하고, 여기에서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모든 것)의 것]([: 동물을 돈(자본)을 주고 사고팔기 때문에 ‘이윤’과 관련 있음.)을 가리킨다.

▶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 조건 ① 소유 관계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소유 관계의 의미)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말했다.(권위 있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타당성을 높임. ‘에리히 프롬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각각 주체와 대상의 살아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죽은 관계, 물건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소유 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소유의 주체: 인간, 대상: 동물) 그러니까 ‘나’와 ‘내가 가진 것’의 관계는 살아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소유 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 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소유 관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 그러므로 이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심지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생명을 지닌 대상을 소유한다는 것의 문제점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 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돈을 지불하고

동물을 사거나 볼 수 있는 장소)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돈(화폐)을 지불하고 동물을 통해 즐거움(이익)을 얻는 관계)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반려동물의 산업화)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가령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상업적 목적의 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움직임)한다.]([]: ‘영국과 달리 미국은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규제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달러의 벌금**(상업적 목적의 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사례 ①)을 물리고,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펫 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상업적 목적의 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사례 ②)했다. 이러한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것 가운데 한 부분)]([]: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을 규제하는 이유)으로 보인다.

▶ 반려동물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필자의 주장)하면 이런 반론이 나온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팔았고 그때에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으니,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 필자의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 ‘글쓴이는 예상 반론에 대하여 **자본주의 이전 시기 동물 거래의 성격과 규모를 근거로 재반론하였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반론의 관점에 대한 인정) 하지만 저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직접 농사를 짓거나 가족의 식사를 위한 목적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하는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거래의 규모가 매우 작았음.)이었다는 점이다.]([]: 반론에 대한 반박.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본주의와 상관없이 존재하였으므로 현재의 문제와 무관하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성격과 규모가 달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거래 문제에 대한 예상 반론과 반박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현대 육류 산업의 방식), 즉 **‘육류 산업’**(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 조건 ②)이다.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킨다면, ‘육류 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육류 산업’이 가져온 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를 낳는다.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음식으로 인식한다는 반증.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되는 것은 동물을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어떤 동물이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유: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기 때문)은 그 동물이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라는 의미이다.

▶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다른 조건: 육류 산업

2008년 미국의 영화감독 로버트 케너가 만든 **기록 영화**(현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영화. 다큐멘터리) 「푸드 주식회사」는 **이 문제**(육류 산업이 동물을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낳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이 영화는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 특히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오게 되었는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영화 「푸드 주식회사」의 주요 내용. ‘**매체 자료(영화)를 예시로 들면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육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실체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는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다. [반려동물인 강아지의 상당수가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듯이, 식품으로서의 육류 역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사실상의 ‘공산품’이다.]([]: 강아지=공장에서 태어난 공산품, 육류=기업에 의해 생산된 공산품) **오래전에 인류가 사냥 등을 통해 자연에서 획득한 것과는 다르다**(과거 인류는 동물을 자연

에서 획득한 반면, 현대는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음.)는 뜻이다.

▶ 「푸드 주식회사」에 드러난 육류에 대한 인식

육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반론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먹었으며,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영양’ 섭취를 위해서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육류 산업, 육식 문제와 관련한 반론 ①)는 것이다. 누군가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육식이 그토록 시급한 문제냐고 지적**(육류 산업, 육식 문제와 관련한 반론 ②)하기도 한다.

▶ 육식 문제와 관련한 예상 반론

세상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 문화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고,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많다.(반론 ①에 대한 반박 ①) 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등 일부 선진국에 국한된 이야기겠지만, 오히려 [현대인은 비만·당뇨·콜레스테롤 혈증·성인병 등의 각종 현대적 질환 때문에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고 있다.]([] : 반론 ①에 대한 반박 ②) 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반론 ②에 대한 반박. ‘기후 변화나 기아 문제 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는 서로 별개의 것이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 육식 문제와 관련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 탓은 아니다.(‘글쓴이는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오직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등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는 ‘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의 대부분은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동물 학대의 원인)한다.

▶ 동물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또 다른 원인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 차별주의)은 오래전에도 있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 차별주의라고 부른다. **인간 중심주의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인간 중심주의의 정의.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은 인간 이외의 존재를 하등하게 여기는 인식의 바탕이 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이고, **종 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않을 행동을 다른 종에게는 저지르는 ‘차별’**(종 차별주의의 정의)의 논리를 의미한다.

▶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의 개념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를 설정했을까? **데카르트**(서양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받는 철학자)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것)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인간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가령 개와 고양이 차이, 늑대와 너구리의 차이 등을 간단히 무시한다.**(인간 중심 사고의 문제)

▶ 인간 중심 사고의 문제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 :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형성한 배경)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데, 이는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동물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되고 있다.

▶ 동물권 논의가 필요한 이유

동물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윤리학자 **피터 싱어**(실천 윤리학자. 동물 해방론을 주장함.)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피터 싱어의 주장)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입장)하는 반면,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피터 싱어가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피터 싱어는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은 서로 다르다고 인식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의 동물권 주장자들은 믿음·지각·기억·욕구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삶의 주체라고 지적한다.]([]: 최근 동물권 주장자들의 입장)

▶ 동물권 보장의 필요성

[본론]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조건

[결론]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동물을 소유물, 식량으로 간주하는 것)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하는 데 있다.]([]: 근본적 해결책. **‘동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인식의 전환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태도**(도구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동물을 소유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인간이 동물과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야 올바른 의미의 **‘공존’**(인간이 동물과의 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점)이 가능해진다.]([]: **‘동물을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체적인 생명으로 이해해야 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인간과 동물의 올바른 의미의 공존

누군가가 ‘동물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주체로,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반려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동물에게 주어지는 권리**(필자가 생각하는 동물권의 의미)라고 대답할 것이다.

▶ 필자가 보는 동물권의 의미

[결론] 동물과 관련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과 동물과 인간이 바람직하게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
- 고봉준, 『나는 반려동물과 산다』

고1
공통국어1
창비

2027 고1 공통국어1 창비 | 3(1) 인간과 동물의 공존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 **논증**(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_____와 _____를 제시하는 방식.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하는 글 읽기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서론]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규모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_____)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다. [오랫동안 저성장(규모가 커 가는 정도가 _____)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오늘날 국내 전통적 산업과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세가 서로 다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900만 마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려동물에 대한 _____ 인식)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고 하니,**(반려동물에 대한 낮은 인식의 _____) 이는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것이다.

[서론]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반려동물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본론]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은 ‘소유’ 관계(동물에 대한 인간의 _____를 결정짓는 기본 조건 ①)이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은 모두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 이전에 ‘소유물’(_____ 관계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자본주의**(소유 관계로 인식하게 되는 _____)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뜻하고, 여기에서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모든 것)의 것]([[: 동물을 돈(자본)을 주고 사고팔기 때문에 ‘_____’과 관련 있음.])을 가리킨다.

▶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 조건 ① 소유 관계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소유 관계의 의미)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말했다.(권위 있는 철학자의 말을 _____하여 _____을 높임. ‘에리히 프롬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각각 주체와 대상의 살아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죽은 관계, 물건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소유 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소유의 _____: 인간, _____: 동물) 그러니까 ‘나’와 ‘내가 가진 것’의 관계는 살아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소유 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 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소유 관계가 문제가 되는 _____) 그러므로 이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심지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생명을 지닌 대상을 소유한다는 것의 문제점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돈을 지불하고 동물을 사거나 볼 수 있는 _____)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____(화폐)을 지불하고 동물을 통해 _____(이익)을 얻는 관계)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반려동물의 _____)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가령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상업적 목적의 동물 거래를 _____하는 움직임)한다.]([]: ‘영국과 달리 미국은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규제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달러의 벌금**(_____ 목적의 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사례 ①)을 물리고,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펫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상업적 목적의 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_____ ②)했다. 이러한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것 가운데 한 부분)]([]: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을 규제하는 _____)으로 보인다.

▶ 반려동물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____의 _____)하면 이런 반론이 나온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팔았고 그때에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으니,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 필자의 주장에 대한 예상 _____ . ‘글쓰이는 예상 반론에 대하여 자본주의 이전 시기 동물 거래의 성격과 규모를 근거로 재반론하였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반론의 관점에 대한 _____) 하지만 저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직접 농사를 짓거나 가족의 식사를 위한 목적 등 _____인 측면에서만 하는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거래의 규모가 매우 _____)이었다는 점이다.]([]: 반론에 대한 _____ .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본주의와 상관없이 존재하였으므로 현재의 문제와 무관하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성격과 규모가 달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거래 문제에 대한 예상 반론과 반박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현대 _____의 방식), 즉 **‘육류 산업’**(동물에 대한 인간의 _____를 결정짓는 기본 조건 ②)이다.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킨다면, ‘육류 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육류 산업’이 가져온 동물에 대한 _____)를 낳는다.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_____으로 인식한다는 반증.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되는 것은 동물을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어떤 동물이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유: 동물이기 이전에 _____이기 때문)은 그 동물이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라는 의미이다.

▶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다른 조건: 육류 산업

2008년 미국의 영화감독 로버트 케너가 만든 **기록 영화**(_____을 _____으로 기록하는 영화. _____) 「푸드 주식회사」는 **이 문제**(육류 산업이 동물을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_____를 낳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 준다. 이 영화는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 특히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오게 되었는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영화 「푸드 주식회사」의 주요 내용. ‘매체 자료(영화)를 예시로 들면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육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실체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는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다. [반려동물인 강아지의 상당수가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듯이, 식품으로서의 육류 역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사실상의 ‘공산품’이다.]([]: _____=공장에서 태어난 _____)

____, ____ =기업에 의해 생산된 _____) **오래전에 인류가 사냥 등을 통해 자연에서 획득한 것과는 다르다**(과거 인류는 동물을 _____에서 획득한 반면, 현대는 기업에서 _____하고 있음.)는 뜻이다.

▶ 「푸드 주식회사」에 드러난 육류에 대한 인식

육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반론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먹었으며,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영양’ 섭취를 위해서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육류 산업, 육식 문제와 관련한 _____ ①)는 것이다. **누군가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육식이 그토록 시급한 문제냐고 지적**(육류 산업, 육식 문제와 관련한 _____ ②)하기도 한다.

▶ 육식 문제와 관련한 예상 반론

세상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 문화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고,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많다**.(반론 ①에 대한 _____ ①) 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등 일부 선진국에 국한된 이야기겠지만, 오히려 [현대인은 비만·당뇨·콜레스테롤 혈증·성인병 등의 각종 현대적 질환 때문에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고 있다.]([] : 반론 ①에 대한 _____ ②) 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반론 ②에 대한 _____ ‘기후 변화나 기아 문제 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는 서로 별개의 것이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 육식 문제와 관련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 탓은 아니다.(‘글쓴이는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오직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등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는 ‘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유기견이나 길고양이 _____)의 대부분은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동물 학대의 _____)한다.

▶ 동물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또 다른 원인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인간 중심주의 또는 _____)은 오래전에도 있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 차별주의라고 부른다. **인간 중심주의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_____의 정의.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은 인간 이외의 존재를 하등하게 여기는 인식의 바탕이 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이고, **종 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않을 행동을 다른 종에게는 저지르는 ‘차별’**(종 차별주의의 _____)의 논리를 의미한다.

▶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의 개념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를 설정했을까? **데카르트**(서양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받는 철학자)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동물이 인간보다 _____ 존재라는 것)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인간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가령 개와 고양이**의 차이, **늑대와 너구리의 차이 등을 간단히 무시한다**.(인간 중심 사고의 _____)

▶ 인간 중심 사고의 문제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 :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형성한 _____)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데, 이는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_____)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과는 별**

개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동물에 대한 생각 자체를 _____)되고 있다.

▶ 동물권 논의가 필요한 이유

동물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윤리학자 피터 싱어(____ 윤리학자. 동물 _____을 주
 장함.)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피터 싱어
 의 _____)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동물
 과 인간이 _____고 생각하는 입장)하는 반면,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피터 싱어가 동
 물과 인간이 _____고 주장하는 근거)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피터 싱어는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은 서로 다르다고 인식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의 동물권 주장자들은 믿음·지각·기억·욕구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삶의 주체라고 지적한다.]([]: 최근
 _____들의 입장)

▶ 동물권 보장의 필요성

[본론]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조건

[결론]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동물을 _____으로 간주하는
 것)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하는 데 있다.
]([]: 근본적 _____, '**동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인식의 전환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가 틀
 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과 맺고 있는 관
 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태도(____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동물을
 소유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인간이 동물과 _____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야
 올바른 의미의 '**공존**'(인간이 동물과의 관계에서 _____해야 할 점)이 가능해진다.]([]: '**동물을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도구
 가 아니라 주체적인 생명으로 이해해야 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인간과 동물의 올바른 의미의 공존

누군가가 '동물권'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주체로,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반려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동물에게 주어지는 권리**(필자가
 생각하는 _____의 _____)라고 대답할 것이다.

▶ 필자가 보는 동물권의 의미

[결론] 동물과 관련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과 동물과 인간이 바람직하게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

- 고봉준, 『나는 반려동물과 산다』

고1
공통국어1
창비

2027 고1 공통국어1 창비 | 3(1) 인간과 동물의 공존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제재 개관

갈래	논증하는 글
성격	분석적, 논증적, 비판적, 성찰적
주제	동물과 진정한 공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태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조건을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함. •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을 제시하여 논증을 강화함. • 매체 자료를 예시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함. •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를 인용함.

2.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 조건

- 조건 ①

자본주의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
↓	
소유관계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들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	
동물은 생명이 아닌 '물건'이라는 잘못된 관점	

- 조건 ②

육류 산업	공장식 축산, 도축의 산업화
↓	
동물을 생명이 아닌 '음식'으로만 인식하게 함.	

- 조건 ③

인간	중심주의, 종 차별주의
↓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	
↓	
동물은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짐.	

3.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펫 습,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 제재 개관

갈래	신문 기사(매체 자료)
성격	분석적, 비판적, 구체적
주제	펫 습으로 대표되는 국내 반려동물 불법 유통의 현실과 문제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 • 반려동물 불법 유통의 실태를 그래프로 제시함. • 국내와 해외의 반려동물 입양 상황을 비교하여 제시함.

4. 「반려견과 함께 기적을 만든 반려인과의 만남」
제재 개관

갈래	텔레비전 예능(매체 자료)
성격	회고적, 성찰적
주제	반려견 훈련사와 반려견 보호자가 말하는 동물 구조의 의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반려견 훈련사)와 일반인(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됨. • 농담을 하기도 하고 출연자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전하기도 하며 감성적인 내용이 포함됨. •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함.

5. 반려인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

사는 것	입양하는 것
긴 시간 팔리지 않는 강아지를 구입한 경험	학대받던 강아지를 입양한 경험

↓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동물을 구해 주고 싶다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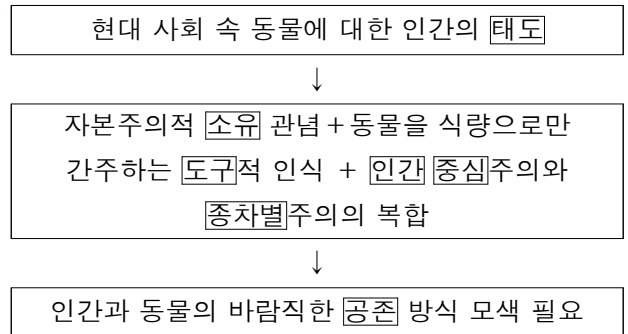
6.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의제

의제	반려동물 판매 금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혹한 환경과 비정상적인 번식이 이뤄짐. • 불법 번식으로 유통 및 판매됨.

7.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주장에 대한 반론과 반박

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먹었고, 영양 섭취를 위해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 •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육식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나 개인적 선택으로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문가로부터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라고 권고받는다. •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가 별개가 아니다.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타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8.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현대인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지향점



9. '인간과 동물의 공존' 내용 정리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내려놓고 인간과 동물이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펫 숍,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	펫 숍 을 규제해야 한다.
「반려견과 함께 기적을 만든 반려인과의 만남」	고통의 상황에 놓인 동물을 구해 야 한다.

나무아카데미 배포금지

TEST 1단계

1.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제재 개관

갈래	<input type="checkbox"/> 증하는 글
성격	<input type="checkbox"/> 석적, <input type="checkbox"/> 증적, <input type="checkbox"/> 판적, <input type="checkbox"/> 찰적
주제	동물과 진정한 <input type="checkbox"/> 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태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input type="checkbox"/>건을 구체적인 <input type="checkbox"/>례로 분석함. • 예상되는 <input type="checkbox"/>론과 그에 대한 <input type="checkbox"/>론을 제시하여 논증을 강화함. • <input type="checkbox"/>체 자료를 예시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함. •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input type="checkbox"/>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를 <input type="checkbox"/>용함.

2.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 조건

- 조건 ①

<input type="checkbox"/> 본주의	인간의 모든 행위가 ' <input type="checkbox"/> 운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
<input type="checkbox"/> 유관계	대상을 <input type="checkbox"/> 의 <input type="checkbox"/> 건으로 만들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동물은 <input type="checkbox"/> 명이 아닌 ' <input type="checkbox"/> 건'이라는 잘못된 관점	

- 조건 ②

<input type="checkbox"/> 류산업	<input type="checkbox"/> 장식 <input type="checkbox"/> 산, <input type="checkbox"/> 축의 <input type="checkbox"/> 업화
↓	
동물을 생명이 아닌 ' <input type="checkbox"/> 식'으로만 인식하게 함.	

- 조건 ③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심 <input type="checkbox"/> 의, <input type="checkbox"/> 별주의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
↓	
동물은 인간이 <input type="checkbox"/> 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짐.	

3.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펫 숍,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 제재 개관

갈래	<input type="checkbox"/> 문 기사(매체 자료)
성격	<input type="checkbox"/> 석적, <input type="checkbox"/> 판적, <input type="checkbox"/> 체적
주제	펫 숍으로 대표되는 국내 반려동물 <input type="checkbox"/> 법 <input type="checkbox"/> 통의 현실과 문제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input type="checkbox"/>법 <input type="checkbox"/>통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input type="checkbox"/>료를 제시함. • 반려동물 <input type="checkbox"/>법 <input type="checkbox"/>통의 실태를 <input type="checkbox"/>래프로 제시함. • 국내와 해외의 반려동물 입양 상황을 <input type="checkbox"/>교하여 제시함.

4. 「반려견과 함께 기적을 만든 반려인과의 만남」
제재 개관

갈래	□레비전 예능(매체 자료)
성격	□고적, □찰적
주제	반려견 훈련사와 반려견 보호자가 말하는 동물 □조의 의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가(반려견 훈련사)와 □반인(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화를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됨. 농담을 하기도 하고 출연자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전하기도 하며 □성적인 내용이 포함됨. □인의 경험과 생각을 □동체의 문제로 □장함.

5. 반려인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

사는 것	입양하는 것
긴 시간 □리지 □는 강아지를 □입한 경험	□대받던 강아지를 □양한 경험

↓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동물을 □해 □고 싶다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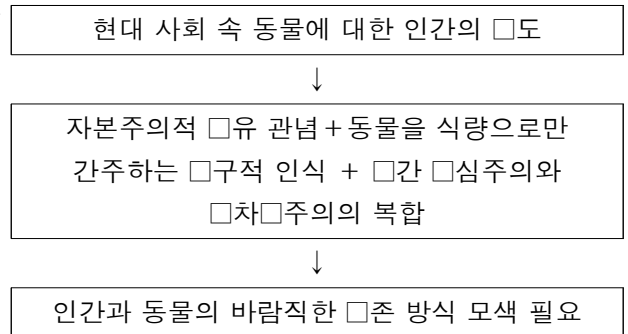
6.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의제

의제	반려동물 □매 □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혹한 환경과 □정상적인 □식이 이뤄짐. □법 □식으로 □통 및 □매됨.

7.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주장에 대한 반론과 반박

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었고, □양 섭취를 위해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 인류가 □결해야 할 □제가 많은데, □식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나 개인적 선택으로 □식□의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문가로부터 □식을 줄이거나 □식을 하라고 권고받는다. 인류가 시급히 □결해야 할 □제와 □물에 관한 □제가 별개가 아니다.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오 □인이다.

8.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현대인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지향점



9. '인간과 동물의 공존' 내용 정리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내려놓고 인간과 동물이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펫 숍,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	□□을 규제해야 한다.
「반려견과 함께 기적을 만든 반려인과의 만남」	고통의 상황에 놓인 동물을 □해야 한다.

나무아카데미 배포금지

O / X 문제

【1~17】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십시오.

1. 이 글은 동물과 진정한 공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태도를 주제로 하고 있다. (O / X)

2. 글쓴이는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을 제시하여 논증을 강화하였다. (O / X)

3. 글쓴이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 중 하나는 ‘소유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O / X)

4.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동물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O / X)

5. ‘육류 산업’으로 인해 동물은 ‘식량’에서 ‘동물’로 인식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O / X)

6. 동물 확대는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O / X)

7. 피터 싱어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 이유를 동물과 인간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O / X)

8.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전통적 산업과 달리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이나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O / X)

9.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가 모든 것을 살아 있는 생동하는 주체로 변형시킨다고 말했다.

..... (O / X)

10.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마트, 펫숍, 동물원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다. (O / X)

1. O 2. O 3. O 4. X 5. X 6. X 7. O 8. O 9. X 10. O

고1
공통국어1
창비

2027 고1 공통국어1 창비
3(1) 인간과 동물의 공존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 논증하는 글 읽기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다. 오랫동안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900만 마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고 하니, 이는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은 '소유' 관계이다.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 이전에 '소유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뜻하고, 여기에서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의 것을 가리킨다.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말했다. 소유 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나'와 '내가 가진 것'의 관계는 살아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소유 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 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곤란

한 문제가 생긴다.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심지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 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가령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펫 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반론이 나온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팔았고 그때에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으니,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익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 즉 ‘육류 산업’이다.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킨다면, ‘육류 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낳는다.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어떤 동물이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동물이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라는 의미이다.

2008년 미국의 영화감독 로버트 케너가 만든 기록 영화 「푸드 주식회사」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 준다. 이 영화는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 특히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오게 되었는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이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실체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는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다. 반려동물인 강아지의 상당수가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듯이, 식품으로서의 육류 역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사실상의 ‘공산품’이다. 오래전에 인류가 사냥 등을 통해 자연에서 획득한 것과는 다르

다는 뜻이다.

육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반론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먹었으며,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영양’ 섭취를 위해서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육식이 그토록 시급한 문제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세상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의 문화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고,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많다. 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등 일부 선진국에 국한된 이야기겠지만, 오히려 현대인은 비만·당뇨·콜레스테롤 혈증·성인병 등의 각종 현대적 질환 때문에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주의를 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고 있다. 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 탓은 아니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는 ‘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의 대부분은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한다.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은 오래전에도 있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 차별주의라고 부른다. 인간 중심주의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종 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않을 행동을 다른 종에게는 저지르는 ‘차별’의 논리를 의미한다.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를 설정했을까?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인간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가령 개와 고양이 차이, 늑대와 너구리 차이 등을 간단히 무시한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는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동물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윤리학자 피터 싱어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동물권 주장자들은 믿음·지각·기억·욕구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삶의 주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동물을 소유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에야 올바른 의미의 ‘공존’이 가능해진다.

누군가가 ‘동물권’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주체로,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반례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동물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 고봉준, 『나는 반려동물과 산다』 중,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